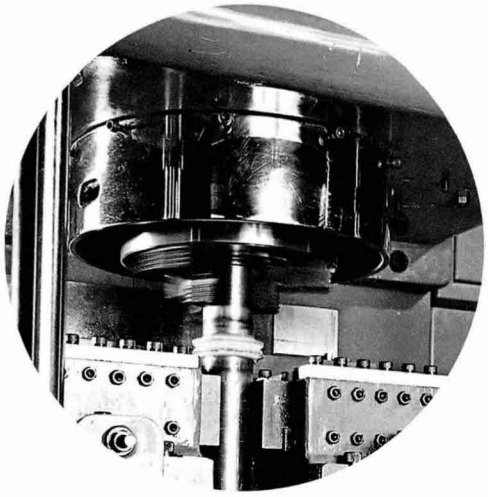


金 鴻 模/ 열연금속(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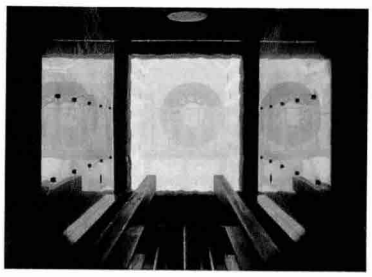
기술개발의 열쇠 —— 협력업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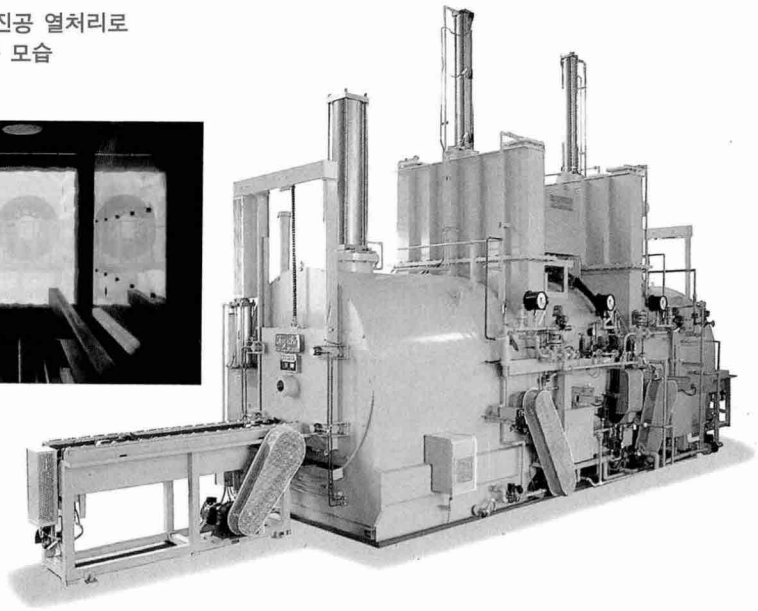
최근 무역적자가 1백억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경쟁력 저하와 기술개발의 不在로 꼽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은 Q(품질), C(비용), D(생산성)중 품질과 가격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앞서지 않고는 수출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각각인 우리 현실에서 무역적자 감소란 요원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전기·전자는 소프트웨어이고, 철(鐵) 등 금속이나 비금속등은 하드웨어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止揚)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숨쉬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만드는 釘의 경우 수십만번을 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하우가 없을수 없지요…

표면처리의 주장비인 진공 열처리로
왼쪽 작은 사진은 내부 모습





지난 '91 국제군수산업전 기간중 처음 뵈었습니다만, 기술개발과 국산화에 대한 정열이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기술개발의 문제점이나 활성화를 위해 평소 현장에서 느끼셨던 지론(持論)을 말씀해주시지요…

'손'과 '발'이 따로 노는게 문제입니다. 상공부나 과기처의 육성지원제도는 훌륭합니다. 자금을 갖다쓰라고 하지만, ○○○ 개발자금이라 하여 주계약업체만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看過)할수 없는 것은 품목의 공정이 무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결국 주업체가 여러 기술·공정(工程)업체에 뿔뿔이 발주하게되고, 이렇게 하여 조립을 하게 되니 불량율이 높아집니다. 또 잘못된 것(부품)은 품목별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수조원을 투입한 개발자금의 결실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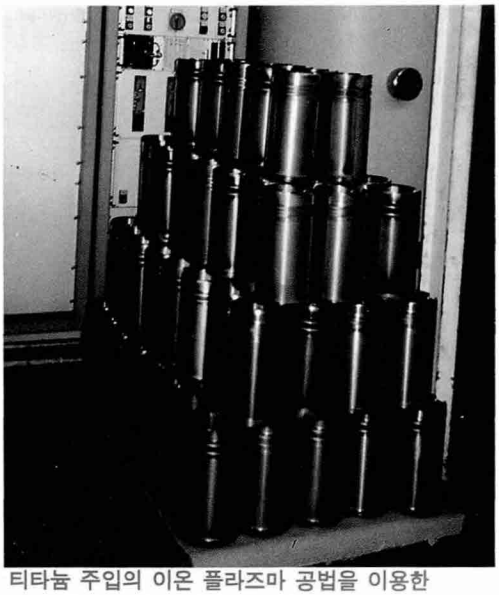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에 덧붙여 말씀하신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외국자료로 대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품목별, 기술별로 조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협력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근로자체제로서 의존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인정신을 갖는 중소기업(고유업체)은 소신있게 해나갈수 있습니다. 이들을 기술개발의 첨병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나 효율 향상은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방산제품과 관련하여 열처리기술이 응용되는 사례와 함께 열처리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얘기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포탄 탄두 격침, 기어, 포탄 날개, 장갑차 궤도에 이용되는 알미늄이나 링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티타늄 주입의 이온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한 첨단 독일 장비로 만든 생산품

현재 열처리기술은 이온 플라즈마에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티타늄을 주입하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를 통틀어 독일의 1개사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의료장비나 유압부품, 엔진부품등 민수용을 계획했으나, 현지 확인결과 防産에 더욱 많이 운용됨을 알게 됐습니다. 포신등의 내열, 내마모, 변형을 방지함은 물론 총신등 각종 무기류 등 첨단 방산장비에 운용되는 고도기술입니다.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은?

病을 알려 치료방법을 찾는 정보시대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업체가 기술은 주계약업체보다 더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품목개발의 二元化체제를 갖춰가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각각 움직일때 기술개발은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보안에 주력하다보면 새로운 기술도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문제를 Open 할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몹시 아쉬운 시간입니다. (대담 : 김영태)